

거사가



[해제]

본 가사는 1936년에 중앙인서관에서 발행한 조선문학전집 제2권 가사집(歌詞集) 상에 실린 작품이다. 3.4조 내지는 4.4조 위주의 평민가사로서 총 114구 구성이요, 2구 1행을 이루는 가사형식의 기본 형에 준하여 이르면 총 57행의 가사라 할 수 있다. 이는 작자와 제작 연대가 미상으로 활자체로 전하는 가사체이다. 그 사설에 나타난 ‘없다, 산밖에 산, 백년을 즐길적에~’ 등의 표기 형태 등으로 미루어 최근세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내용은 불교를 믿는 어느 거사(居士)가 수도하던 산중에서 미모의 여인을 만나 마음이 어지러워져 파계(破戒)하고, 속세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는 꿈을 간절하게 노래한 연정가사(戀情歌辭)이다. 작품 구성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락은 거사가 미모의 여인을 반갑게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찬미와 영정(艷情)이 가득한 간절한 술회를 덧붙인 내용으로 총 26행의 서술이다. 둘째 단락은 이에 이어 과부요, 열녀라고 자칭하는 여인이 거사의 청혼을 간곡히 사절하는 장면으로서 11행에 걸쳐 서술하였다. 셋째 단락에서는 굶힐 줄 모르는 거사의 뜻이 마침내 실현되어 백년동락(百年同樂)을 다짐하는, 20행으로 구성된 서술이다. 내용의 전개에 미사여구의 과용과 도식적 표현이 적지 않으나, 은연중 속된 거사의 행위를 풍자하면서도 사랑이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점이 돋보인다. 특히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의 묘사는 거사와 미녀와의 대화체 서술을 극명하게 하여 작품에서의 화법적 표현(話法的表現)을 효과적으로 추구하였다. 그럼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유별나게 끌게 한 면은 이 가사의 한 특색으로 지적된다. 시작되는 가사이다.

[원문]

의 낭군의 열화흔백상이로다 에헤이
 에헤야 에헤이 에헤야 열남는 식구
 가 다굴머주거도 혼백상은 똥집을 터
 처라 두동둥둥 개야 내사랑아
 一, 시집사리는 에루화 다들려가누나 시
 아범다리고 술추렴이나 가잔다 에헤
 이 에헤야 에헤이 에헤야 집안은 다
 되엿다 시아범먹고 며누리먹고 지지
 고 보꼬고 먹자 또루룩 두동둥둥 개
 야 내사랑아
 一, 모여라 우리나라 삼동세 모여라 시
 아범 자바다 훌룰룰 빼배뱅 돌려라
 에헤이 에헤야 에헤이 에헤야 그놈
 의 아희가 크기도크다 물레줄 열두틀
 이 다난봉났다 두동둥둥 개야 내사
 랑아
 一, 집동개 석령은 내담당할터니 이마
 나 눈섭을 여덟의팔짜로 지어라 에
 헤이 에헤야 에헤이 에헤야 이마나
 눈섭을 지을줄 몰라서 속눈섭을 다
 뽀바노코 물독을 안고서 빼배뱅 돈다

두둥둥둥 개야 내사랑아

一, 영감의 잡놈을 보면은 생골이 덜
커덕 올라도 총각의 아제를 보면은
앙당이춤만 나간다 에헤이 에헤야 에
헤이 에헤야 영감년석의 째질랑 무
이발대로 두어도 총각의 아제 째질
랑 세속수로 가려서 망에다 박박 가
라라 두둥둥둥 개야 내사랑아

一, 물동의는 금정틀 대뿔에 노코 드
레졸 쥐고 통사정만 한다 에헤이 에
헤야 에헤이 에헤야 서답줄 결박에
물방치째이라 두둥둥둥 개야 내사랑
아

거사가

어화 그뉘신고 어대로서 오시는가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내산중 기픈곳에 누를차자 오시는가
반갑기도 무궁하고 깃브기도 척량없다
허허 깃블시고 희희 대소로다
이때가 삼월인지 나물캐러 오시는지
산명을 반겨듯고 연불공덕 오시는가
하늘로 나럿는가 따흐로 소삿는가
세류가튼 가는허리 춘풍에 휘노는듯
용모거동 바라보니 백태천염 가즐시고
팔짜춘산 그린눈섭 초생반월 아니신가
다순을 반개하고 웃는듯 찡기는듯
한나라 왕소군가 월나라 서시런가
이곳이 요지런가 서왕모의 짓이로다
형산에 팔선년가 남악에 위부인가
위공의 자란인가 당명황의 양귀빈가
천태만염 가짓스니 사람인지 귀신인지
반갑기도 무궁하고 깃브기도 척량없다
이내몸 거사되여 세상공명 하직하고
태산을 의지하여 우락을 물랏더니
산중에 도를다까 이각시를 만나서라
귀신이 도우시고 신령이 도우신가
이산중에 깃을드려 목탁으로 정을부쳐

산채를 캐어먹고 음ᄃᆞᄂ을 몰랐더니
아모리 갈라한들 오신각시 갈길없다
사면을 살펴보니 만류할이 뉘잇는가
거사님아 거사님아 내사정 드러보소
청춘팔짜 기박하여 이내몸 과부되니
가부를 이장코저 명산을 두로차자
태산을 평지삼고 대해를 육지사마
사해를 구경하고 명산으로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와서 그대에게 옥을보니
옥을보고 살양이면 열녀라 칭찬하리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사님전 비나이다
이내몸 이산밖에 무사히 나게하면
머리털로 신을삼고 풀을매자 가프리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사님전 비나이다
어화 저거사의 하는거동 괴이하다
범종의 말씀으로 급격물실 제일이라
처사가 완완하면 그사이에 종이난다
우리두리 만나기는 천우신조 하였고
각시님 가련하되 버서날길 바이없다
함정에든 범이오 중영에든 파리로다
산밖에 산이오 물밖에 물이로다
거사님 하는말이 자태도 그만두오
이런줄 아랏스면 어느뉘가 거사되리
아미타불 영불인들 깃붙시고 이거서라
백팔염주 목탁쟁증 부처님께 드리리라
산신님께 폭백하고 부처님께 하직한후
나는간다 나는간다 산아래로 나는간다
나는실타 나는실타 가사바랑 나는실타
가다가 아모대나 산조코 물조흔대
자좌오향 제법으로 수간초옥 지은후에
석전을 기피가라 초식을 머물망정
창송 취죽가치 백년을 즐길적에
유자생녀 하고보면 목탁길중 이름하세
이세상 다진커든 후생길을 다끄리라

船遊歌
가세가세 자네가세
가세가세 놀러를 가세
배를타고 놀러를 가세

지두덩기어라
동덩덩지로 놀러를 가세
앞집이며 뒷집이라
각위각집 가인네들은
장부간장 다노긴다
동삼월 계삼월아
희양도봉 봉도라를 오소
희양도봉 봉도라를 오소
에남나 에일소니 돈받소
가든님은 이젓는지
꿈에한번 아니온다
내아니 이젓거든
젠들설마 이즐소냐
가세가세 자네가세
가세가세 놀러를 가세
배를타고 놀러를 가세
지두덩기어라
동덩덩지로 놀러를 가세
이별이야 이별이야
이별이짜 내든사람
날과백년 원수로다
동삼월 계삼월아
희양도봉 봉도라를 오소
에남아 에일소니 돈받소
사라생전 생리별은
생초목에 불이로다
불꺼줄이 뉘잇습나
가세가세 자네가세
가세가세 놀러를 가세
배를타고 놀러를 가세
지두덩지어라
동계 동동덩지로 놀러를 가세
나는죽네 나는죽네
임자로하야 나는죽네
나죽는줄 알랑이면
불원천리 하렛마는
동삼월 계삼월아
희양도봉 봉도라를 오소

거사가

에남아 에일소니 돈받소
박랑사중 쓰고나은 철퇴
천하장사 항우를 주어
깨치리라 깨치리라
이별이짜 깨치리라
가세가세 자네가세
가세가세 놀러를 가세
배를타고 놀러를 가세
지두덩지어라

[현대역]

거사가

어화1 그 누구신고 어디에서 오시는가
 천상 백옥경(天上白玉京)을2 어찌하여 이별하고
 이내 산중 깊은 곳에 누굴 찾아오시는가
 반갑기도 무궁(無窮)하고 기쁘기도 측량(測量)3없다
 허허 기쁠시고 희희(嬉嬉, 嘻嘻)4 대소(大笑)로다
 이 때가 삼월인지 나물 캐러 오시는지
 산명(山名)을5 반겨 들고 영불 공덕(念佛功德)하러6 오시는가.
 하늘에서 내렸는가 땅에서 솟았는가
 세류(細柳)7 같은 가는 허리 춘풍(春風)에 휘노는 듯
 용모 거동(容貌舉動) 바라보니 백태천염(百態千艷)8 갖추었네
 팔자 춘산(八字春山)9 그린 눈썹 초생 반월(初生半月)10 아니신가
 단순(丹脣)을11 반개(半開)하고 웃는 듯 찡그리는 듯
 한(漢)나라 왕소군(王昭君)인가12 월(越)나라 서시(西施)이런가13
 이곳이 요지(瑤池)이런가14 서왕모(西王母)의15 짓이로다
 형산(衡山)의 팔선녀(八仙女)인가16 남악(南嶽)에 위부인(魏夫人)인가17
 위공(魏公)의 자란(紫鸞)인가18 당(唐)명황(明皇)의19 양귀비(楊貴妃)인가20
 천태만염(千態萬艷)21 갖추었으니 사람인지 귀신인지
 반갑기도 무궁(無窮)하고 기쁘기도 측량(測量)22 없다
 이내 몸 거사(居士)되어23 세상 공명(功名)24 하직(下直)하고25
 태산(泰山)을 의지하여 우락(憂樂)을26 몰랐더니
 산중(山中)에서 도(道)를 닦아 이 각시를27 만났도다
 귀신이 도우시고 신령(神靈)이 도우셨는가
 이 산중에 깃을28 들어 목탁(木鐸)으로29 정을 부쳐
 산채(山菜)를 캐어 먹고 음☞을 몰랐더니
 아무리 가라한들 오신 각시 같길 없다
 사면(四面)을 살펴보니 만류할 이 누가 있는가
 거사(居士)님아 거사님아 내 사정 들어보소
 청춘 팔자(靑春八字) 기박(奇薄)하여30 이내 몸 과부되니
 가부(家夫)를31 이장(移葬)코자32 명산(名山)을 두루 찾아
 태산(泰山)을 평지(平地)삼고 대해(大海)를 육지(陸地) 삼아
 사해(四海)를33 구경하고 명산으로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와서 그대에게 욕(辱)을 보니
 욕을 보고 살 양이면 열녀(烈女)라 칭찬하리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사님 전 비나이다
 이내 몸 이 산 밖에 무사히 나가게 하면

머리털로 신을 삼고³⁴ 풀을 맺어 갇으리라³⁵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시님 전 비나이다
어화 저 거사의 하는 거동(舉動) 괴이(怪異)하다
범증(范增)의³⁶ 말씀으로 급격물실(急擊勿失)³⁷ 제일이라
하는 처사(處事) 완완(緩緩)하면³⁸ 그 사이에 좀이³⁹ 난다
우리 둘이 만나기는 천우신조(天佑神助)하였고⁴⁰
각시님 가련하되 벗어날 길 전혀 없다
함정(陷穽)에 든 범이오 중영에 든 파리로다
산 밖에 산이요 물 밖에 물이로다
거사님 하는 말이 자태(姿態)도⁴¹ 그만 두오
이런 줄 알았으면 어느 누구가 거사 되리오
아미타불(阿彌陀佛) 염불(念佛)인들⁴² 기쁘도다 이것들아
백팔염주(百八念珠)⁴³ 목탁 쟁정(木鐸錚鈺)⁴⁴ 부처님께 드리리라
산신(山神)님께 폭백(暴白)하고⁴⁵ 부처님께 하직(下直)한 후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산 아래로 나는 간다
나는 신타 나는 신타 가사(袈裟) 바람⁴⁶ 나는 싫다
가다가 아무 데나 산 좋고 물 좋은 데
자좌 오향(子坐午向)⁴⁷ 제법으로 수간 초옥(數間草屋)⁴⁸ 지은 후에
석전(石田)을⁴⁹ 깊이 갈아 초식(草食)을⁵⁰ 먹을망정
창송 취죽(蒼松翠竹)⁵¹ 같이 백년(百年)을⁵² 즐길 적에
유자 생녀(有子生女)하고⁵³ 보면 목탁(木鐸) 길중 이름하세⁵⁴
이 세상 다 진(盡)하거든⁵⁵ 후생(後生)⁵⁶ 길을 닦으리라

[각주]

- 1) 어화 : 기쁜 마음을 나타내어 노래로 누구를 부르는 소리.
- 2) 천상백옥경(天上白玉京) : 하늘 위에 있다는 천제(天帝)의 궁전. 백옥경(白玉京) : 옥경(玉京). 하늘 위에 옥황상제(玉皇上帝)가 산다 하는 가상적인 서울.
- 3) 측량(測量) : 생각하여 헤아리는 것. 이에 대한 가사 원문 표기는 ‘척량’으로 되어 있음. (참고 : 가사의 원문 중 속음(俗音)이나 변음(變音)의 표기, 또는 오자(誤字) 등은 가사의 현대역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그 표기의 예를 이처럼 제시해 둔다. 이하 다른 각주 에 드는 낱말의 경우도 이와 같다.)
- 4) 희희(嬉嬉, 嘻嘻) : 기뻐서 웃는 모양. 또는 즐겁게 웃는 모양이나 소리.
- 5) 산명(山名) : 산의 이름. 또는 유명한 산의 이름.
- 6) 영불 공덕(念佛功德) : 열심히 영불하여 이루는 공과 불도를 닦는 덕.
- 7) 세류(細柳) : 세버들. 가지가 매우 가는 버들.
- 8) 백태천염(百態千艷) : 온갖 아름다움을 갖춘 자태.
- 9) 팔자춘산(八字春山) : 팔자 청산(八字靑山). 미인의 고운 눈썹을 이르는 말.
- 10) 초생반월(初生半月) : 반달로 떠오르는 초승달.
- 11) 단순(丹脣) : 여자의 붉고 고운 입술. 이에 대한 가사 원문 표기는 ‘다순’으로 되어 있음.
- 12) 왕소군(王昭君) : 이름은 장(嬙). 중국 전한 원제(元帝)의 후궁. 흉노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와 정략결혼을 하였으나 자살함.
- 13) 서시(西施) : 중국 춘추시대 월(越) 나라의 미인.
- 14) 요지(瑤池) : 중국 곤륜산(崑崙山)에 있다는 못. 주(周)나라 목왕(穆王)이 서왕모(西王母)를 만났다는 이야기로 유명함.
- 15) 서왕모(西王母) : 중국 신화에 나오는 신녀(神女)의 이름. 불사약을 가진 선녀라고 함.
- 16) 형산(衡山) : 중국 오악(五嶽)의 하나인 남악(南嶽). 팔선녀(八仙女) : 조선 숙종 때에 김만중(金萬重)이 제작한 고전소설 ‘구운몽(九雲夢)’에 나오는 주인공 양소유(楊少游)의 처첩인 여덟 미인을 일컫는 말.
- 17) 남악(南嶽) : 중국 오악(五嶽)의 하나인 형산(衡山)을 달리 이르는 말. 위부인(魏夫人) : 이름은 삭(鑠). 중국 서진(西晉)의 여류 서가(書家).
- 18) 위공(魏公) :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위나라의 군주. 자란(紫鸞) : 자줏빛을 한 난조(鸞鳥). ‘난조’는 중국 전설에 나오는, 서조(瑞鳥)로 꼽는 상상의 새. 모양은 봉황과 비슷하고 붉은 깃에 오채(五彩)가 섞여 있으며, 그 소리는 오 음(五音)과 같다고 함.
- 19) 명황(明皇) : 중국 당나라 현종(玄宗)의 시호.
- 20) 양귀비(楊貴妃) : 중국 당나라 현종(玄宗)의 귀비(貴妃). 춤과 음악에 뛰어나고 총명하여 현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음.
- 21) 천태만염(千態萬艷) :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곱고 아름다운 모습.
- 22) 측량(測量) : 앞에 든 주4 참조.
- 23) 거사(居士) : ① 우바새(優婆塞). 세속에 있으면서 불교를 믿는 남자. ② 처사(處士). 숨어 살며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 ③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놓고 지내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 24) 공명(功名) : 공을 세워 드러난 이름. 공을 세워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
- 25) 하직(下直) : 먼 길을 떠날 때에 웃어른께 작별을 아뢰는 것.

- 26) 우락憂樂 : 근심과 즐거움.
- 27) 각시 : 젊은 여자. 새색시.
- 28) 깃 : 보금자리.
- 29) 목탁木鐸 : 독경이나 영불을 할 때, 또는 사람을 모이게 할 때 두드리는 물건.
- 30) 기박(奇薄) : 팔자가 사납고 복이 없음.
- 31) 가부(家夫) : 가군(家君). 남에게 자기 남편을 이르는 말.
- 32) 이장(移葬) : 개장(改葬). 무덤을 옮기는 일.
- 33) 사해(四海) : 사방의 바다. 또는 온 세상.
- 34) 머리털로 신을 삼다 : 머리털을 베어 신을 삼다. 무슨 짓이든지 하여 은혜를 갚는다는 뜻임.
- 35) 풀을 맺어 갚다 : 결초보은(結草報恩)을 뜻한 말로 죽어서까지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 출전은 좌씨춘추전(左氏春秋傳). 중국의 진(晉)과 진(秦)이 싸울 때, 진(晉)의 위과(魏顆)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아버지의 혼령이 나타나 그를 위해 풀을 묶어 놓음으로써 진(秦)의 두회(杜回)를 넘어지게 하여 붙잡게 했다는 고사에서 연유한 말임.
- 36) 범증(范增) : 중국 진(秦)나라 말기 사람. 초(楚)나라의 항우(項羽)를 따라 기계(奇計)로써 전공을 세웠음.
- 37) 급격물실(急擊勿失) : 급히 쳐서 때를 놓치지 않음.
- 38) 처사완완(處事緩緩) : 일처리가 느릿느릿함.
- 39) 줌 : 의류와 종이의 해충. 사물을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해치는 사람이나 물건의 비유.
- 40) 천우신조(天佑神助) : 하늘과 신의 도움.
- 41) 자태(姿態) : 몸가짐과 맵시.
- 42) 아미타불(阿彌陀佛) : 안양교주(安養教主). 대승불교에서 정토교(淨土教)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 자력으로 성불(成佛)할 수 없는 사람도 영불하면 그 구제력으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함. 영불(念佛) : ① 소리를 내어 경을 외우는 일. ② 부처의 모습과 공덕을 생각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외거나 불명(佛名)을 부르는 일.
- 43) 백팔염주(百八念珠) : 작은 구슬 108 개를 꿰 염주. 백팔 번뇌(百八煩惱)를 상징함.
- 44) 목탁쟁쟁(木鐸錚錚) : 목탁과 징. 이에 대한 가사 원문의 표기는 '목탁쟁증'으로 되어 있음.
- 45) 폭백暴白 : 억울하고 분한 사정을 털어놓고 말하는 것.
- 46) 가사(袈裟) : "무구의(無垢衣). 중이 장삼 위에,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걸쳐 입는 법의(法衣). 종파에 따라 그 빛깔과 형식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음.
- 47) 자좌 오향(子坐午向) : 자방(子方)을 등지고 오방(午方)을 바라보는 좌향(坐向).
- 48) 수간 초옥(數間草屋) : 수간 모옥(數間茅屋).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
- 49) 석전(石田) : 돌밭. 돌이 많은 척박한 밭. 또는 쓸모없는 것의 비유.
- 50) 초식(草食) : 푸성귀로만 만든 음식. 또는 푸성귀만 먹는 일.
- 51) 창송 취죽(蒼松翠竹) : 창송 녹죽(蒼松綠竹). 푸른 소나무와 푸른 대나무.
- 52) 백년(百年) : 썩 오랜 세월이나 해. 또는 일평생의 비유.
- 53) 유자생녀(有子生女) : 아들딸을 낳는 것.
- 54) 길중 이룸하세 : (어휘의 뜻 미상)
- 55) 진(盡) : 다하거나 없어짐.

56) 후생(後生) : ① 뒤에 태어난 사람. ② 내생(來生). 죽은 뒤에 태어남. 또는 그 생애.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